

민주당 정권 재창출 1차 과제는 대통합 '원팀'

‘무효표 처리’ 경선 이의신청 ...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확정”
이낙연, 이번주내 경선 승복 결단할 듯...후보가 먼저 통합 메시지 내야

뉴스초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정권재창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경선에서 승리<광주일보 11일자 1·2·3·4면>했지만 ‘턱걸이 과반’에 그쳐, 이낙연 전 대표가 결선투표를 위한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내용에 휩싸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선 후보를 축제 분위기에서 선출하고 대선 승리를 약속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경선 피날레가 결선투표 논란에 애매한 분위기에서 끝난 것이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미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원팀으로 정권재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로 귀결된 경선 결과와 관련, 이른바 ‘무효표 처리’를 취소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의신청 서류를 냈다. 서류봉투에는 ‘특별당규 59조 1항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적었다. 특별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선관위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즉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에도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무효표 처리’가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했다”며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선 직후,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힌데다 ‘무효표’ 당사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도 ‘결선투표’ 보다는 ‘원칙’을 강조, 당내 균형추는 이미 이재명 지사의 후보 확정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이의 신청에 따른 당내 결선투표 논의를 지켜본 뒤, 경선 승복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여권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정권재창출에 부담이 되는 이 문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선투표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당내 결집이다. 이번 논란이 끝났다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내 원팀 구성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진보진영 결집과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되면서 정권재창출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1위를 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도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통합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대위 구성 등에 있어 이 전 대표 진영을 품을 수 있는 너른 정치적 공간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이 진보·

보수 진영 간의 5% 내외의 접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결집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권력의 특성이 폐쇄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뤄내는 첫 번째 관건이라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대선후보 광주 총출동 “5·18 정신 계승” 호남민심 공략

대선 본경선 레이스 본격 스타트

국민의힘이 11일 광주에서 대선 후보 본경선 일정에 돌입하면서 ‘불모지’인 호남 공략에 본격 나섰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현장 최고 위원회를 열고 ‘5·18 정신 계승’을 외치는 등 호남 구애에 ‘올인’했다. 또한, 이날 5·18 민주묘지 참배와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함께 참석해 광주와의 인연 등을 소개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전남 호남을 첫 발로 뚫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 지사에 대한 날 선 공격도 이어졌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날 오전 5·18 민주묘지 참배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유승민·원희룡 대선 후보가 함께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비공개 개인 일정을 이유로 묘지 참배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 8월 20일 광주 방문 당시 묘지를 참배했다.

윤석열 후보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5·18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와 공화국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광주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리겠다”면서 한목소리로 5·18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다.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호남 구애’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후보 4명에 대해 “어느 때보다 호남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라고 치켜세우면서 개인별 호남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호남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1만 5000여명으로 지난 2월(2144명)의 7배가 넘는다”며 “저희의 꾸준한 노력에 조금씩 광주·전남 사람들이 화답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전남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과연 그 정당이 5·18 정신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1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근 신원이 확인된 고 신동남씨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유승민 후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 호소했다. 홍 후보 역시 이 후보의 3차 선거인단 경선 참패를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가 범죄자 대선이 돼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지금쯤이면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인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 지사를 겨냥해 “광주·호남 여러분이 지지할 후보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며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정권교체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부터 전남대까지 5km 구간을 2시간 가량 걸으며 ‘대장동 게이트’ 특권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에 나섰다. 4명의 대선 후보들은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본경선 첫 TV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둔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